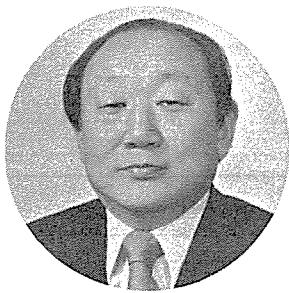


# “科學은 精神과 調和를”



金連俊

〈한양대학교 이사장〉

科學者들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와 신뢰는 자못 크고 또 뜻깊은 것으로 여겨 왔다.

科學이야말로 인류가 누려온 물질적인 진보에 대해서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왔다.

인류의 미래는 科學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빛과 어둠 중 어느 한 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科學의 世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문명의 利器를 제공해 주었으며 또한 미래에 대해 꿈과 환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現代科學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어둠과 절망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 첫번째의 사실은 科學이 政治的인 또는 宗教的인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도 地球村의 구석구석에서 는 가공할만한 科學武器에 의한 殺傷이 자행되

고 있다. 우리 韓國의 처지 역시 전쟁중인 그 나라들의 상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괴집단이 전쟁준비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의 전쟁이 몰고오는 가공할 파괴력과 대량학살, 거기에 따르는 공포와 불안, 질병과 기아가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 정도를 더하여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科學者들은 민족과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여야 할 것이며, 인류의 무한한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 두번째로 現代科學이 지닌 어두운 국면은 科學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다.

환연하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컴퓨터와 로보트에 의하여 모든 것이 행해지는 가정생활을 보고 戰慄을 느낀적이 있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科學에 의하여 개인과 개인이 서로 소외하고, 개인과 가정, 개인과 사회가 서로 소외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외현상은 인류가 지금까지 간직하여 왔던 고귀한 정신문명을 여지없이 파괴해버릴 것이다.

우리는 科學이 발달한 나라 일수록 전통적인 모랄이 급속하게 해체되어 가는 것을 목격해 왔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큰 사회적·국가적인 진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

# 이뤄야 生命을 가진다<sup>99</sup>

인, 개인과 이웃, 그리고 혈연관계 사이의 따뜻한 우애와 情誼는 한국의 정신문명을 이루어 온 기본적인 출기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학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심각한 대조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사뭇 남다른 바가 있다. 이제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목표로 하는 인류의 행복은 과학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발전에 상응하는 정신문명에 대해서도 관심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과학은 곧 정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知的 世界의 영웅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가라고 말하고 싶다. 정신과 조화되는 과학이야 말로 생명이 있는 과학, 피가 흐르고 인간이 느껴지는 과학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과학자가 담당해야 하는 범주안에는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역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지면을 빌어 과학자들이 수행해 나가야 하는 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사랑의 실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곧 과학자들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비단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닐 것이지만 과학자들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한층 절실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것

은 인류를 위한 것인 만큼 인류를 위하는 사랑이 과학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 할 여지가 없는 일일 것이다.

실로 사랑의 정신이란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큰 빚이요, 구원이었다. 사랑이 없는 곳엔 약육강식의 속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공산주의란 바로 이 약육강식의 역사가 만들어낸 기형아이며, 현대의 과학은 공산주의에 의하여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과학자 자신들도 핵무기의 위험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첨단의 과학이 발달된 현대사회의 이 地球村 곳곳에서는 공포와 불의와 폭력과 기아가 橫行하고 있다. 이러한 곳일수록, 이러한 때일수록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이 요구된다.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실은 사랑의 정신안에서 더 쉽게, 더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다만 진실의 목격자로서, 혹은 知的 直觀力의 소유자로서 머물러 있는 한, 과학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의 정신이 시대의 정신으로 具現 될 때 그 부정적인 면은 말끔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자로서 과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제거되고 기대가 성취되기를 굳게 믿고 싶다.